

- 암소중 비육암소비율이 22.6%이며, 수소 중 거세우비율은 67.1%
  - 번식용암소중 2산이하가 72%, 3~4산이 25%, 5산이상 3%
- 조사농가의 평균축사 이용율은 76%
- 한우산업에 대한 인식 및 사육의향
  - 장래 사육두수 유지 또는 확대가 94%(확대 51, 유지 43)
  - 장래 소값에 대해 농가의 59%가 하락, 32%가 현수준 유지 전망
  - 적정 송아지가격은 150만원, 큰소가격은 350만원(가격차 200만원) 응답
- 번식우(일관사육농가 포함) 사육현황 및 의향
  - 번식농가의 장래 사육의향은 확대 63%, 현상유지 34%
  - 번식우의 평균산차도 79%가 연장, 19%가 현 수준 유지 응답
- 비육우(일관사육농가 포함) 사육현황 및 동향
  - 향후 거세를 계속하겠다는 농가가 73%
  - 비육만하는 농가 중 향후 일관사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가 76%로 번식에 대한 비육농가의 관심 증가
- 한우 경쟁력에 대한 농가 인식
  - 조사농가의 81%가 한우의 경쟁력이 높거나 있다고 응답
  - 향후 유지해야 할 적정사육두수는 89%가 180~220만두로 응답
    - 180~200만두가 55%, 200~220만두가 34%
-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
  - 쇠고기 유통질서확립 35%, 가격 안정 29%,
  - 송아지생산 및 번식기반유지 23% 순임
- 주요 건의사항
  -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지원확대, 인공수정료 지원 및 전담 축협지도원 배치
  - 번식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
  -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지원 강화
  - 육우 및 수입쇠고기 한우둔갑 단속 철저,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 정착
  -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
  - 구제역, 광우병 등 가축질병예방 철저
  - 현행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양축가 신뢰감 확보
  -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(5% → 3%)

### • 번식우 위탁·예탁사업

한우작목반(농협) 및 축산작목반(축협) 참여농가를 계약농가로 하여 한우번식사업을 실시하려는 조합

- “**작목반 육성 및 지원준칙**”에 의한 작목반이 결성되고 작목반 참여농가를 계약농가로 선정하여야 하며

- 회원조합 지도·지원규정 제90조(지원제한대상회원)에 해당하는 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

### 나. 대상조합 선정

- 사업 희망조합에 대하여 지역본부의 추천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조합 선정

### 다. 번식사업 지원

- “조합 번식우사업 표준지침” 개발 보급 및 순회 교육

- 송아지 육성을 제고를 위한 면역백신 지원(1억원)

-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(59백만원)

## 3. 추진일정

### 희망조합 신청

- 회원조합 → 지역본부 : '02. 4. 10까지

- 지역본부 → 한우낙농부 : '02. 4. 20까지

대상조합 선정 : '02. 4월중

## 한우사육 실태조사결과

### 1. 조사개요

- 조사방법 : 시·도별로 3~9농가씩 조사원(농림부, 시·도, 농협중앙회)에 의한 농가면접조사 실시
- 조사기간 : '02.1.22 ~ 2. 4일간
- 조사농가 124호
  - (10두미만) 23호, (10~49두) 40호, (50~99두) 28호, (100두이상) 33호

### 2. 조사결과 요약

#### ■ 농가경영 현황

- 경영주의 연령은 41~60세가 79%이며 40세이하 15%, 61세 이상이 6%
- 일관사육 48%, 번식경영 35%, 비육경영 17%